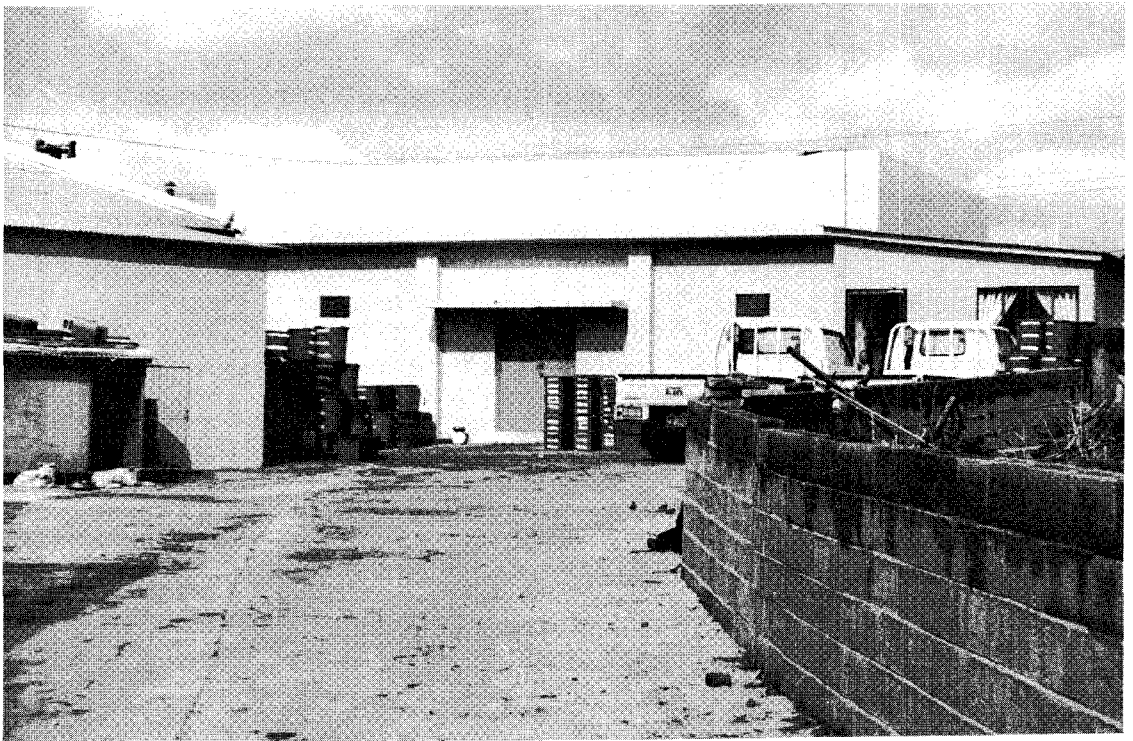


김상범씨를 찾아서

# 제주도 三養食品

10여년전 두채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콩3말로 시작하면서 “제발 5말 정도의 콩을 소비할 수 있다면”하는 소박한 꿈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결과 이제는 제주도내 굴지의 두채업자로 자리를 굳혔고 제주 시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부각되면서 감히 어느 누구도 경쟁의 대상으로 꺼리게끔 한 오늘이 있기 까지에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바다에 나가 해녀 일로서 가정을 꾸려 나가며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한 정신을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현재에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 건강으로 콩나물공장 일을 돌보아 주고 계시는 그의 모친의...



**설** 날이나 추석대목같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60여가마의 콩이 콩나물로 길러집니다. 온집안 식구와 이웃들이 모두 동원되어 며칠씩 밤을 세우기가 일쑤죠!”

아무리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60여가마의 콩으로 콩나물을 길러 낸다고 상상해 보자. 어디 그것뿐인가 10여가마의 녹두가 숙주나물로 동시에 재배되고 있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제주시 삼양1동 1680-1, 김상범씨의 콩나물 공장 -

400평에 가까운 대지위에 6개동의 공장과 별도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음을 찾아볼 수 있을것만 같다.

그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겨우 익히기시작한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4.3 제주폭동이라는 거대한 회오리는 김상범씨의 가족을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의나이 겨우 4세때 -

그의 모친은 이때부터 바다에 나가 해녀일로서 가계를 꾸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젊었을때부터 다져지기 시작한 그의 모친의 건강상태나 강인한 정신은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함과 함께 작용하여 김상범씨에게 크나큰 유산이 되어 오



6개동의 콩나물재배장에는 그의 꿈이었자 보람이 자라고 있고

늘이 있게한 원동력으로 작동케 된 것이다.

그의 모친은 칠순을 훨씬넘긴 현재에도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젊은사람 못지않게 활동하고 있으며 김상범씨의 콩나물공장 일에도 큰몫을 하고 계신다.

**김** 상범씨가 콩나물에 손을 댄것은 약10년전.

학교졸업이후 나름대로의 삶을 찾기위하여 직장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빵 대리점을 할때까지 누구못지않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는 실패라는 쓰라린 교훈만 남겨주었다. 그후 4-5년간의 공백기간에도 결코 좌절만을 하지않고 재도약의

기회를 열보던중 선배 이정웅씨의 도움으로 두채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3말 정도의 콩으로 근근하게 콩나물을 길러 시장에 출하 하면서 “제발 콩5말정도만 할 수 있다면”하는 소박한 욕심으로 열심히 노력 하였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기존업자와의 마찰속에서 선의의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어느듯 하루 7말을 확보하게 되었고 두채업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면서 부터는 하루에 콩 4가마를 소화시킬수 있는 제주도내 굴지의 두채업자로 성장하여 있었다.

그러나 그후 제주도내 두채업자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전공장에 자동기계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저만 갖고 따라서 콩나물의 가격도 덩핑투매 행위로 상호 비방을 일삼는등의 상식 이하의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자 양식 있는 업자 8명이 모여 100여평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그위에 40여평의 건물을 짓고 조합형태로 콩나물을 공동지배 출하하였으나, 신규업자의 출현으로 3개월만에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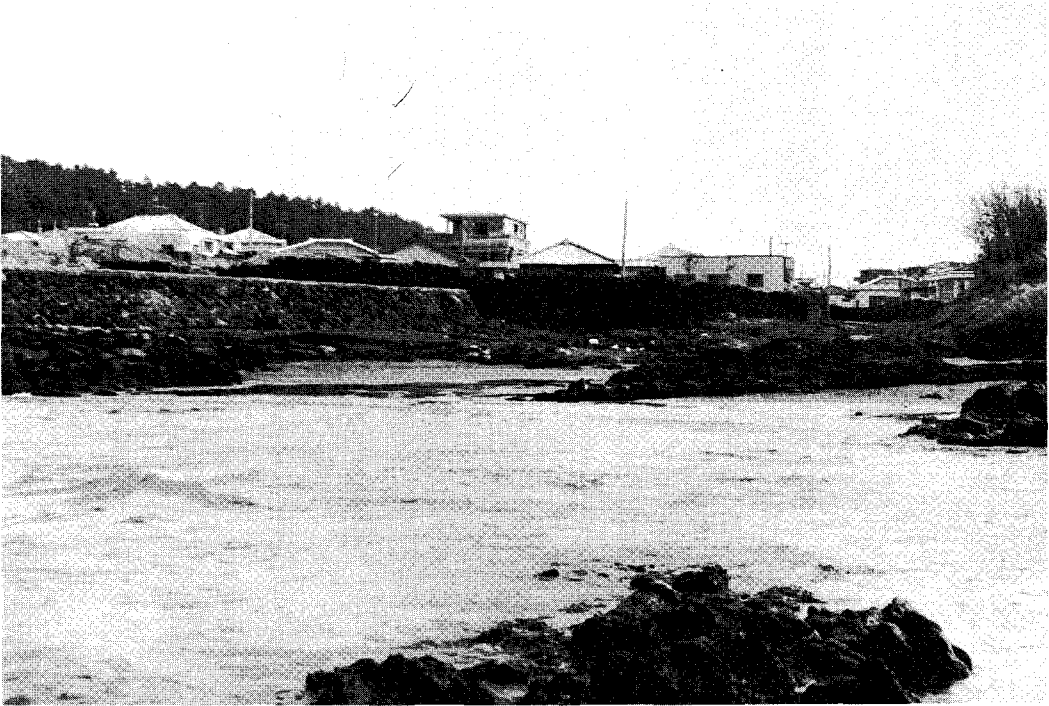
공동으로 콩나물을 재배 출하하는데는 약간의 불편한 점도 있지만 유리한 점이 더 많다는 매력때문에 다시 뭉쳤다가 헤어지기를 여러차례 거듭한 현재에는 3명만이 남아 하루 콩7가마와, 녹두2가마 정도로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재배하여 제주시와 북제주군관내 200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

다.

김상범씨의 콩나물공장에서 출하하고 있는량은 동일지역 시장점유율 약50~60%를 차지하고 있어 이지역 콩나물 시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대**지 382평, 건평150평, 6개동의 공장전체에 자동기계와 보일러 시설을 갖추고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콩나물을 재배 출하하고 있다. 지금도 제주시 관내에는 업자 상호간의 경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상범씨만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자리잡고 있어 그누구도 직접적인 충돌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범씨의 콩나물공장은 바닷가에서 약200여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수에 바다물의 유입이 걱정스러웠으나 다행히 양질의 지하수가 솟고 있었다. 제주도 섬전체가 현무암으로 형성되어 있고 비가와도 모두 지하로 스며드는 지역특성 때문인지 한라산에서 형성된 수맥이 그대로 바닷가 까지 이어지고 있고, 한 예로 제주도의 관광명소인 용두암근처 바닷가 파도와 만닿는곳에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맑은 지하수가 신기하게 분출되고 있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김상범씨의 콩나물재배장은 바닷가 파도가 닿는 곳과 불과 200여m 거리에 있지만 양질의 지하수가 나와 콩나물 재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튼 김상범씨의 콩나물공장  
장이 위치한 제주시 삼양동 일  
대에는 훌륭한 지하수맥이 형  
성되어 있고, 불과 지하 25M뿐  
이 내려가지않은 파이프에서  
쏟아 내는 충분한양의 지하수  
가 콩나물재배에 큰몫을 차지  
하고 있으며 훌륭한 시설과 철  
저한 위생처리 과정을 거친 김  
상범씨의 제품은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기억되게끔 강한 인  
상을 심어주게 되었고, 제주에  
서 콩나물하면 삼양동과 김상  
범씨가 연상될 정도로 우수한  
제품을 다량으로 출하하고 있  
는 중이다.

그가 제주시 관내업자 상호  
간의 경쟁이 한창 치열했던 85  
년도초에 상호비방의 회오리속  
에 농약사건이라는 엄청난 시  
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그것을  
거울삼아 이제는 소비자가 신  
뢰할 수 있는 좋은제품의 콩나  
물을 재배, 출하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내 업자들간의 시장  
쟁탈전은 아직도 계속되  
고 있고 그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지만 우선 그 경쟁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콩나물에 대한 규격기준의

설정과 이의 항구적인 관리대  
책으로 두채업의 허가제나 등  
록제 같은 정부의 제도적인 장  
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지  
만 그보다앞서, “업자들 스스  
로가 상호 불신감정을 하루속  
히 해소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며 양보하는 미덕을 정  
착시켜 공동이익의 길을 순리  
적으로 찾아야할 것이고, 각자  
가 자신의 거래처에 양질의 콩  
나물을 성실히 공급함은 물론  
특히 성수기에 공급에 완벽하  
게 함으로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두채업의 항구적인 개선책으로 정부의 제도장치가 요구되지만 그보다 앞서 업자 상호간의 불신감정을 하루속히 버리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경우 우리 두채업자들도 노력한 만큼의 소득분배가 반드시 이룩될것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그는, 정부는 두채업계가 너무 영세하다고 콩나물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원료콩 수급에서 부터 시장의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두부나 유지, 두유등 같은 콩을 원료로하는 타식품업계 배려하는 정책의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 조상전례로 부터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콩나물이 연간 3,000억원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점을 감지하고 서민 식생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하고 있는 국민 다소비식품 이라는것을 새삼 인식하여 하루속히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며, 우선 업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모인 단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그뜻이 순수하고 진지하다면 공익차원에서 단체설립을 하루속히 허가하여 점차 사양화 되어가는 콩나물업계를 자력으로나마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것이라고 열변을 토한다.

물꼬가 터진 방죽물처럼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그의 열변을 시간을 이유로 가로막고 일어서면서 “훌륭한 공장시설을 두채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업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함은 그의 어머님 뿐이 아니라 그의 부인도...

자들의 견학코-스로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취재진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는 그를 볼때 앞으로 우리 업계의 전망도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김상범씨의 콩나물공장을 뒤로 하였다.

